



생태에서 생존으로: 청춘을 위한 에코페미니즘

01) 에코페미니즘?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가?_에코페미니즘학교 자주기획단
20년 동안 에코페미니즘을 온 몸으로 고민한 언니 이야기_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활동가)

02) 먹거리X자급X농사공동체

우리의 식량 주권은 어디로?_김신효정(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열릴까?_소란(명랑시대 활동가)

03) 개발주의X가부장제

해발전과 가부장제의 달은꼴_나영(지구지역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달은꼴_황윤(다큐 '잡식가족의 달레마' 감독)

04) 물X여성건강X외모우미기

내 몸에 양보하지 않는 4가지_맹맹(전 초록상상 활동가)
네팔을 향해 날오는 달거리대_이아름(여성환경연대 활동가)

05) 도시X소비X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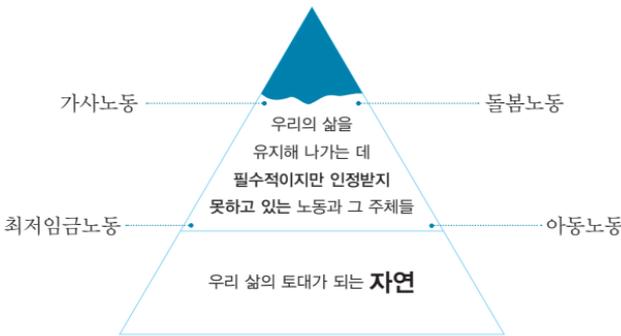
시장에서 오고 가는 노동과 소비_김송희(마르세친구들)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_금지(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부록) 에코페미니즘 추천도서





지금, 여기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들
어쩌면 없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더 높고 날카롭게 다듬어 올라가기 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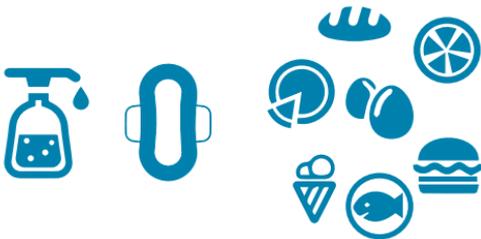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가? | 5





생생청춘 이야기 : 1

쇼핑몰의 헤어 제품 코너에서 서성이며 무엇이 더 나의 머리걸을 부드럽게 해주지,
거기서 거기인 제품들을 보면서 한참동안 시간을 허비할 때,
온갖 화학물질이 들어간 화장품과 생리대를 어떤 고민과 생각없이 그저 소비하고 있을 때,
매일같이 세끼를 먹고 있지만 내가 먹는 것들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을 때.



왜, 나는 소비의 노예가 되었지?
현대인들은 왜 더 무능해지는 것일까?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지금은 가능한걸까?





생생청춘 이야기 : 2

왜, 여자가 70%인 우리 팀에서 중요한 일들은 다 남자가 맡게 될까?
나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
쓸모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내 눈에는 너무나 비뚤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연대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고민을 에코페미니즘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가? | 7





에코페미니즘?

20년 동안 에코페미니즘을 온 몸으로 고민한 언니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여성학, 성미산마을공동체,
10년 넘는 여성환경연대의 활동까지...
이 언니가 '에코페미니즘'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뭘까?
20년 동안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한
에코페미니즘의 언어와 풍경,
그 속에 녹아 있는 공동체,
들봄, 연대의 이야기

자본주의에 숨어 있는 편견

'값어치'라는 것이 어떤 걸까? 값이 매겨지지 않는 것들은 정말 가치가 없어서일까? 임금을 받는 노동, 값을 매길 수 있는 노동만 가치가 있는 걸까? 화폐로 교환되지 않는 전업주부, 자급농, 예술가의 노동은 노동이 아닐까?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고, 공동체에 기여도 하지만 임금노





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가치한 노동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편견이 자본주의에 깊숙하게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급적 관점 Subsistence Perspective (마리아 미즈)

자급에는 '스스로 먹고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근근이 생계를 이어 간다'라는 뜻도 있다.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일이 자급관점이다. '세계화 된 경제'의 반대말은 '지역화 된 살림살이'이다. 자급관점은 자연 그대로의 속도로 살며, 모든 존재의 온전성을 알아채는 시각이다



마리아 미즈(Maria Mies, 1931~)

평등을 넘어 우리들의 행복을 목표로

성장지상주의를 통해 거대해진 독성 가득한 파이를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나눠야한다'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등해질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회의 관계 맺는 방식을 다르게 구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와 노동을 재개념화 하는 것이다. 상품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소비주의에 휘말리지 않고, 단출하고 소박한 삶을 평등의 기준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먹거리X자급X농사공동체

우리의 식량 주권은 어디로?

김신효정(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토종 종자를 지키는 활동들을 만나러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녔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여성 농민들,
그리고 식량주권은 지금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의 밥상이 흔들리고 있다?!

끊임없이 TV에서는 멋진 셰프들이 이국적인 요리를 하고, 어머니의 맛과 집밥을 찾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현실은 편의점 삼각 김밥과 도시락으로 급하게 끼니를 때우고 있다. 한국은 세계 식용 GMO 수입 1위국이고, GMO벼 상용화는 곧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 어두운 예감이 든다.



먹거리 문제 뒤에 음흉하게 숨어 있는 수많은 식품기업들의 탐욕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집밥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들, 밥상의 식재료가 어떻게 오는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식량주권과 토종 씨앗을 지켜온 여성 농민들

농민은 심고 싶은 것을 심고, 생산하고 싶은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소비할 권리가 바로 식량주권이다.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구 구성은 여성 농민이 50% 이상이다. 특히 토종씨앗을 지키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이었다. 씨앗의 종류에 따라 화덕, 창고 등 보관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여성의 가사 노동에 맞게 지켜왔다.



에코페미니즘의 다른 말 걸기

그러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페미니즘은 여성들에게 '부엌을 떠나자'고 이야기 해 왔고, 가공식품 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량이 개발되면서 음식노동보다는 임금노동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그러나 과연 페미니즘이 원하던 것이 GMO와 패스트푸드를 먹으며 평등해지는 것이었을까? 지구에 여러 존재와 함께 살아가면서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화폐 가치로만 측정되는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질문이 바로 에코페미니즘이 던지는 다른 방식의 말 걸기이다.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열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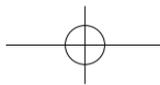
소란(명랑시대 활동가)



이딴 도시를 떠나 다른 삶을 꿈꾸며
귀농 귀촌하는 청년들 소식이
왕왕 들려온다.
정말 내려가면 내가 상상하던
자급의 삶이 가능해질까?
(어르신들 많은 마을에
녀자 혼자서 힘들다던데...)

귀농귀촌의 판타지를 깨라?!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며 시골에 내려간 젊은 여성들은 정작 가부장적이고 노동집약적인 농촌 문화에 경악하게 된다. 어떤 군수는 귀농해서 애를 일곱 낳으면 지원비를 주겠다고 하질 않나, 젊다는 이유로 농촌 잡무를 처리하는 동네 비서가 되질 않나. 그렇다고 청년들이 농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 300평 이상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자립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연고와 자원도 거의 없는 청년에게 딱히 시골이 고향이 아닌 이상, 귀농귀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닐까? 청년에게도, 시골에게도 필요한 것은 ‘시골에서 농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는 다양한 ‘시골살이’이다.

귀농귀촌의 재수생 삼수생 실패자

청년은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맞는 것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유목적 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이런 특징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불성실하다고만 생각한다.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귀농 귀촌을 실패한 청년은 실은 자신에게 맞는 공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거듭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간을 찾아내고,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청년들이 가진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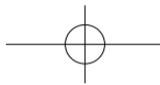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은 어딜까?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최적의 공간이다. 시골인지, 도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조금이라도 자급하면서 자연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식의 삶을 실험하는 것,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다보면 국가나 거대 자본과 결별하는 것도, 우리끼리 자급하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나고 공동 대응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015 상주청년캠프
겨울밤 시골문화살롱 in 상주
도시청년 + 지역청년만남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될까? | 13





핵발전과 가부장제의 답은꼴

니영(지구지역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밀양 초고압 송전탑, 노후원전과 신규원전 이야기는 종종 들어봤지만 이 에너지발전 시스템이 가부장제와 닮아있다고? 밀양 송전탑 싸움에서 왜 나이 든 여성들이 처절하게 싸우는 투쟁의 주체가 되었을까? 이 여성들의 싸움은 단순히 할매가 아니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밀양 할매, 일제시대 순사가 더 무서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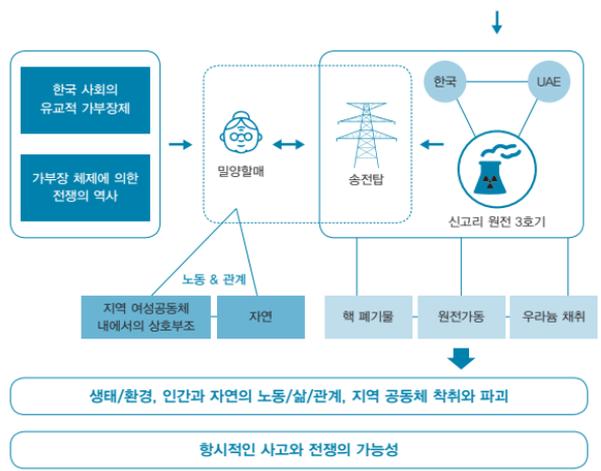
지금 경찰이 더 무서우세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벌어졌던 **한국사회의 가부장제 역사**, 자신이 살아내야 했던 **지역사회의 가부장적 관계**를 온 몸으로 겪어 오신 밀양의 할매들은 이 질문에 ‘순사는 무서웠고, 경찰은 화가 난다’라고 답하셨다. 과거의 일이 억울하고 무서운 경험으로만 남아있었다면, 송전탑 투쟁을 하면서 살아오신 역사를 딛고 재해석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신 것이다.



밀양할매 vs 송전탑 ▶ 자연과의 관계, 공동체 vs 핵마피아, 핵발전시스템
 할매들에게는 노동을 하면 생산물을 주는 땅, 자연과의 관계와,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일을 도와주며 지낸 주변 여성들과의 관계인 '울력'이 남아있다. 이것이 밀양 할매들에게 '밀양이라는 땅'과 공간이 주는 중요한 의미이다. 겉으로 보기에 밀양 투쟁은 '밀양할매-송전탑 건설'로 대치되지만, 그 배경에는 할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버텨온 '가부장적 인 역사'와 송전탑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핵발전 시스템'이 있다.

핵발전을 지속하는 세계적 차원의 자본-군사-제국주의
 : 소수의 자본가, 정치권력, 국제해계모니, 기술 엘리트에게 모든 정보와 통제권이 집중되어 있음



출처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닭은꼴

황윤(다큐<잡식가족의 딜레마> 감독)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여성과 다들
바 없는 엄마돼지들의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 인간 여성과 비인간 여
성의 몸에 대한 착취에 맞서기.
우리는 공장식 축산과 육식주의 매트
릭스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 동물을 좋아했나구요?

참 당혹스러운 질문이다. 동물보호운동가들이 취미로 활동하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영화를 찍는 감독에게 장애인을 언제부터 좋아했냐고 묻지 않는다. 그런데 왜 유독 동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은 호불호를 나눌까? 사회적 약자 중 약자가 비인간인 동물이고, 그 중에서



도 여성 농장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가하는 무자비한 착취를 멈추는 일은 인간 사이의 모든 차별이 사라진 후 가장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오히려 많은 문제들은 실타래처럼 자동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동물영화만이 아닌 페미니즘 영화!

여성 농장 동물에 대한 착취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게 재생산 존재로 치부되는 인간 여성에 대한 착취와 닮아 있다. 정육점의 빨간 등과 흥등가의 빨간 등, 고기 집 간판의 옷은 돼지 이미지와 포르노 속 여성들의 이미지. 얼굴과 삶과 이름이 삭제 된 것들, 부위로서만 불린다는 점에서 이미지와 언어가 유사하다.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보다 심각한 것은 종차별이다.



흑인이 백인을 위해 창조된 게 아닌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닌 것처럼,
동물도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게 아니다.

앨리스 워커 Alice Walker

모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보이지 않는다

멜라니 조이(Melanie Joy),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중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때는 그것과 싸울 수 없다. 제도화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착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라 생각해도 정리할 수 있는 윤리적 틀을 갖기 어렵다. 지금은 '가부장적'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백 년 전만 해도 그런 단어는 없었다. 왜냐하면 가부장제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타당하다고 느껴져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육식도, 육식에 대한 관습도 마찬가지이다. 육식주의의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탈육식주의'를 선택하는 일은 사회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의 꼭두각시가 아닌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몸X여성건강X외모꾸미기

내 몸에 양보하지 않는 4가지

펄펄(전 초록상상 활동가)



그녀가 사용/하지 않는 4가지
일회용생리대, 화장품, 거털밀기, 브라자.
여성의 몸에 대한 시선을 포함해
내 몸과 건강과 생태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녀가 사용/하지 않는 4가지



“제가 잘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약 4년 전부터 일회용 생리대 대신 대안 월경용품으로 면 월경대를 쓰고 있어요. 색조화장도 잘 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 털은 작년부터 그대로 있고, 올 해부터는 브래지어도 자주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 그냥 꾸미는 데 관심이 없구나...오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꼽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볼특정 다수에게 잘 보이기, 은근히 뽐내는 법 궁리하기'인데요. 여하튼 저를 꾸미는 일에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난 에코페미니스트니까 이런 실천을 해야지’라는

선언 아래 시작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냥 어쩌다보니 저런 걸 안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쩌다보니 에코페미니즘이랑 연결되어 있었다. 인간, 특히 여성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문화는 같은 한국, 같은 지역이라도 각자 개별적인 환경들이 수두룩 백백하다.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선택해 온 주변 환경에서는 저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이런 것들은 실천 해줘야 에코페미니스트지”라는 오독이 불편하고 괴롭다! 에코페미니즘과 연결된 개인의 실천들은 다양각색일 것이고, 아주 그래야 한다.

지난 날, 나의 돈과 에너지를 모두 집중하고 불행하게 한 실체

= 몸에 대한 남성화된 시선과 언어들

“여성의 몸과 외모는 자원이고, 이 자원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개선을 요구하죠. 그 때 소비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나 돈을 쓰게 하고, 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 억울했어요. 동시에 ‘나’를 표현하는 방식의 꾸미기와 남성화 된 시각의 외모 꾸미기는 다른 것을 깨닫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누구인지, 나에게 어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는 건데요.”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고 지지하는 공동체, 사람들과 관계 맺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결’을 차곡차곡 만들어나가다 보면 다양각색의 에코페미니즘 실천을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네팔을 향해 날으는 달거리대

이아름(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면생리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나와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는 실천.
면생리대는 날아서
네팔 여성들과 나를 연결해 줄거야.



"저는 일회용 생리대를 꽤 오랫동안 썼어요. 생리를 할 때마다 피부가 가려웠죠. 그럼에도 생리대를 의심해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더 좋은 생리대였죠. 순면, 한방, 녹차 생리대."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보니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점점 더 무능한 현대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자괴감이 들었을 때 다른 걸 꿈꿔보고 싶어졌어요. 내가 소비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불편하더라도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 말이지요."





'하얗게 깨끗하게!' 광고처럼 일회용 생리대는 그렇게 순결한 물건일까?

일회용 생리대 = 얇은데 **흡수력이 좋아!** 어떻게 가능?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화학물질과

고분자 흡수제 짝짝 넣는다는 사실!

여성 몸 중 가장 민감한 질에 흡수되면

각종 피부염과 자궁 내막증, 생리통, **여성 질환 유발.**



일회용생리대 이능, 지구에도 못된 짓을 한다.

한국 생리대 시장은 연간 **2,900억** 규모, 1년 소비되는 생리대 수는 약 **23억** 개 (뜨악💧) 한 달에 5일, 하루 5개씩 생리대를 사용하면, 평생 한 여성이 쓰는 생리대는 **11,000개** 쥘 늘어놓으면 지구 반 바퀴, 여의도만한 숲이 파괴 되는 양

월경 35년간 500회 | 일생의 1/8 | 지금 이 순간 세계 여성의 20%는 월경 중

나 그날이야.
나 매직해.
너 그거 있어?

그런데 우리는 월경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 있나?

그러나 **실은 월경(月經) = 달 '월(月)' 경전 '경(經)'**

'내 몸으로 쓰는 경전이라는 의미'

네팔에서도 터부시되는 월경 문화

97.5%의 서아시아 지역 소녀들은 월경혈이 자궁에서 나온다는 걸 모른다. (Torondel & Sumpter, 2013)

92.0%의 네팔 소녀들은 아무 준비 없이 초경을 맞는다. (WaterAid in Nepal, 2009)

네팔과 한국 여성이 함께 만드는 즐겁고 건강한 월경문화, 나는달 캠페인

한국의 여성과 네팔의 여성을 '월경'으로 연결하여 모두가 자유롭고 건강하게 월경을 할 수 있는 월경문화를 같이 만들어보자. 나의 몸과 지구를 돌보는 작은 실천, 소비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 자급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실천을 출발해 보는 건 어떨까?

네팔을 향해 보내는 달거리대 | 21





시장에서 오고 가는 노동과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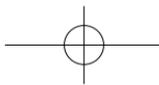
김송희(마르쉐친구들)



사람의 눈 마주침이 오고 가는
도시형장터 마르쉐@.
시장에 오고가는 농부의 노동과
청년의 노동.
도시에서 노동과 소비를
어떻게 바라볼지 쿵작쿵작 실험중인
마르쉐의 이야기

세계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도시 생활자의 소비

도시사람들에게 소비는 일상을 지탱해주는 기본조건이다. 도시는 1차적 생산물을 뽑아낼 수 없는 곳이다. 전기, 물, 먹거리 생각해보면 전부 다른 지역에서 오고 있다. 사실 내가 소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옴고 오는가를 알면, 곧 내 삶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결국 일상의 소비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르쉐@ 장터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는 나의 생태계를 스스로 돌보는 소비라고 생각한다. 내가 소비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나의 삶과 생산자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르쉐@라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노동

기획/운영하는 마르쉐친구들의 노동,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이 되어주는 디자이너, 사진작가의 노동, 시장의 형태를 실제로 구현해주는 집기 설치팀의 노동, 출점팀의 노동, 순수한 노동 형태로 시장을 완성시켜주는 자원활동가들의 노동. 일을 한다는 것은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부터 정성을 기울이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함께 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 보이지 않는 노동들은 점점이 연결되어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돈 외에 서로 성장 할 수 있는 고민을 함께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현실에서 발을 떼는 순간 꿈은 꿈으로 끝난다”

지속한다는 것은 어쨌건 살아남는 것.

가치관을 앞세우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은 잡되 열어놓고 꾸준히 계속해 나간다는 것.

시장은 물건을 팔고 즐겁게 장을 볼 때 지속가능한 힘을 갖게 된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더디더라도 꾸준히 고민을 이어나가는 것. 이념과 기준을 내세우기 전에, 시장을 통해 나와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현실에서 발을 떼지 않고 꿈을 이루는 방법은 아닐까.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금자(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도시에서 자급적 관점의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귀촌은 지리리 삶은 차도녀가 8년차
활동으로 사부작사부작 마려한
절망한 도시의
행복한 에코하우스 이야기까지

자기 마음의 짐 싸기 연습, 단순한 삶의 시작

심플라이프는 귀농도, 귀촌도 맞지 않는 사람이 도시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다. 마음의 유목 상태를 접고, 현재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짐 싸기가 중요하다. 단순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서 시간과 공을 들여 집중할 것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대안적인 생활이나 에코페미니즘적 생활은 공부로만 끝나고 만다. 우선순위는 낮으면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것들



을 줄이기, 대신 어떤 관계와 방식으로 삶의 질을 충족해나갈지 고민하기, 노동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적 연대를 만들어나가기. 바로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

우선순위는 높는데 눈이 제일 많이 드는 것

바로 집이다. 활동가의 월급으로 부모loan을 이용해 도시에 집을 마련하는 방식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가 상상할 수 있는 대안적 주거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가능해진다.

- **지역생활권** : 일본 건축가가 제안한 개념. 건축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짓는다. 개인적 거주 공간을 최소화해 가격을 낮춘다. 대신 커뮤니티 카페, 워크샵 등 외부 공간을 넉넉하게 공동 공간으로 이용한다. 하나의 주거 공동체가 하나의 대안적 경제 생태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 **공동체토지신탁(CLT, Community Land Trust)** : 토지를 과연 누가 소유해야 하는 걸까? 소수의 토지 선점과, 토지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항하는 방식이다.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 대신 공동체가 토지를 소유하되 땅을 사고팔지 않고, 땅 위의 집만 사고판다. 토지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 공동체를 바꿔나가는 집단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다.

자연에서 무언가를 고집어내려 할 때, 우리는 우주 만물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존 뮤어(John Muir)

갑자기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을 때, 한 개인이 시스템이 되는 것. 자신이 변하기 원하는 그 대상 자체가 되는 것. 연결성, 총체성을 보는 것.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생명과 맞닿아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런 능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담론으로만 머물지 않는 에코페미니즘이 아닐까.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 25





● ○ 부록 ○ ●

추천도서



- 각각의 발화자가 주제별로 추천한 도서입니다 -

에코페미니즘, 여성환경운동

-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마리아미즈, 갈무리, 2014
- 〈꿈꾸는 지렁이들〉 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 환경과생명, 2003
- 〈나의 페미니즘 레시피〉 장필화 외 이화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학센터, 서해문집, 2015
- 〈에코페미니즘〉 반다나시바, 마리아미즈, 창작과비평사, 2000
-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여성환경연대, 박영물출판사, 2001
- 〈지금의 삶은 가능한가-힐러리에게 암소들〉 마리아미즈, 베로니카 벤틀트롬젠, 동연, 2013
- 〈자본은 여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피터 커스터스, 그린비, 2015



먹거리, 자금, 귀농, 공동체

-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반다나시바, 울력, 2003
- 〈비야캄페시나-세계화에 맞서는 소농의 힘〉 아네트 아우렐리 데스마레이즈, 한티재, 2011
-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굶다〉 와타나베 이타루, 더숲, 2014
-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마루야마 겐지, 바다출판사, 2014
- 〈식량주권〉 피터로셋, 시대의창, 2008
- 〈우리가 사는 곳에서 로컬푸드 씨 뿌리기〉 탐진 핑커펀, 림 홉킨스, 따비, 2012
- 〈캘리번과 마녀〉 실비아 페데리치, 갈무리, 2011
- 다큐 〈반다나시바 씨앗을 꺼안다〉

부록_추천도서 | 27



- 각각의 발화자가 주제별로 추천한 도서입니다 -

개발주의, 가부장제

- 〈고기, 먹을수록 죽는다〉 모비, 박미연 외, 현암사, 2011
 〈기적의 밥상〉 조엘 필먼, 북성, 2007
 〈닭 담게 살 권리 소송사건〉 예영, 수봉이, 뜨인돌, 2015
 〈동물들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조너선 사프란 포어, 민음사, 2011
 〈동물 홀로코스트〉 찰스 패터슨, 휴, 2014
 〈돼지도 장난감이 필요해〉 박하재홍, 슬로비, 2013
 〈무엇을 먹을 것인가〉 콜린 캠벨, 열린과학, 2012
 〈말양을 살다〉 밀양구술프로젝트, 오월의봄, 2014
 〈생추어리 농장〉 진 바꾸어, 책세상, 2011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멜라니 조이, 모멘토, 2011
 〈우리를 먹지 마세요〉 루비 로스, 두레아이들, 2011
 〈월드 피스 다이어트〉 윌 터틀, 황소자리, 2013
 〈육식, 세상을 망치고 건강을 망친다〉 존 로빈스, 아름드리 미디어, 2000
 〈육식의 성정치-페미니즘과 채식주의의 역사의 재구성〉 캐럴리. 아담스, 미토, 2006
 〈은폐된 원자력, 핵의 진실〉 고이데 히로아키, 녹색평론사, 2011
 〈죽음의 밥상〉 피터 싱어, 짐 메이슨, 산책자, 2008
 〈프랑켄슈타인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 캐럴리. 아담스, 미토, 2003
 〈현미밥 채식〉 황성수, 페가수스, 2009
 〈후쿠시마에서 살아간다〉 맹맹책협동조합, 맹맹책협동조합, 2014
 〈희망의 밥상〉 제인구달, 사이언스 북스, 2006

롬, 여성건강, 외모꾸미기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 이유명호, 웅진지식하우스, 2004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클로리아 스타이넬, 현실문화연구, 2002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크리스티안 노스롭, 한문화, 2000
 〈외모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 김주현, 책세상, 2009
 〈핸드메이드생리대〉 여성환경연대, 네모의꿈, 북센스, 2010

28 | 부록_추천도서



도시, 소비, 노동, 주거

- 〈3만엔 비즈니스,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하기〉 후지무라 야스유키, 북센스, 2012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제현주, 어크로스, 2014
 〈성장을 멈춰라〉 이반 일리히, 미토, 2004
 〈슬로 이즈 뷰티풀〉 쓰지 신이치, 일월서각, 2010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방법〉 알렌산더 폰 신부르크, 열린책들, 2006
 〈인간의 조건〉 한나 아렌트, 한길사, 2002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조지프 히스, 마티, 2009
 〈작은 집을 권한다〉 다카무라 토모아, 책읽는수요일, 2013
 〈혼자 못 사는 것도 재주:리스크 사회에서 약자들이 함께 살아남는 법〉
 우치다 타츠루, 북뱅, 2014
 영화 〈리틀포레스트〉 이가라시 다이스케

에코페미니즘 세계관 더보기

[위계적인 이원론 세계관]

| | |
|----------------|----------------------|
| 중심 | 주변 |
| 인간 | 자연·동물 |
| 문화(문명) | 야생 |
| 이성·정신·합리성 | 감성·육체·비합리성 |
| 추상성·보편성 | 구체성·특수성 |
| 서구 | 비서구 |
| 주체 <i>self</i> | 타자 <i>the others</i> |
| 목적 | 도구 |
| 우월 | 열등 |
| 지배 | 피지배 |

발 플럼우드(Val Plumwood)의 주인모델(master model)

위계적인 이원론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에코페미니즘의 관점

에코페미니즘은 결국 위계론적 이원론을 파괴하는 것, 여성이 남성에게 지배를 받는 것과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는 힘이다.

부록_추천도서 | 29

